

보도시점

2024. 4. 18.(목) 17:00

배포

2024. 4. 18.(목) 09:00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

-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가 백신접종과 지자체 백신공급 상황 등 점검, 접종요령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 당부
- 농식품부, 5월부터 혈청검사를 통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목)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충청남도과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럼피스킨 107건 발생(10.19~11.20), 구제역 11건 발생(5.10~5.18)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과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 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 충남지역 4월 백신접종 대상 : (럼피스킨) 9.2천호 385천두(당진, 서산, 태안, 홍성, 논산, 아산, 청양, 예산, 부여, 보령, 서천), (구제역) 충남 전체 시군 소·염소 대상(12.5천호 493천두)

이에 권 실장은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신별 접종방법 : 럼피스킨(피하접종), 구제역(근육접종)

아울러 “작년 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기한 내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면역)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 60% 이상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김지호 (044-201-253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